

# 감 사 원

## 주 의 요 구

제 목 선착장 설치공사 추진 부적정

소 관 기 관 해남군

조 치 기 관 해남군

내 용

### 1. 업무 개요

해남군 Ⅲ과는 주민숙원사업의 하나로 2017년 11월 관내 일원에 “■■■ 선착장<sup>1)</sup> 설치공사<sup>2)</sup>”를 하고 2018년 2월 선착장 보강공사를 추진하여 2018년 9월에 준공 처리하는 등 총 383,751,000원을 들여 위 선착장을 설치·관리하고 있다.

### 2.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지방재정법」 제3조 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그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사업을 추진할 때는 해당 사업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을 만큼 완성도 높은 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하고, 시설물을 일부만 설치하여 제대로 활용하지 못함에 따라 이미 투입된 예산이 장기간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타인의 토지를 사용할 때에는 해당 토지를 취득하거나 토지소유자로부터 사용승낙을 받는 등의 사용권원을

---

1) Ⅲ호면 ⅡⅢ리에 선착장이 없어 ⅡⅢ면 ⅡⅢ항을 ⅡⅢ 어촌계와 ⅡⅢ 어촌계가 공동으로 이용하고 있으나 ⅡⅢ항의 어선 정박여건도 좋지 않아 어촌계 간의 다툼이 발생하고 있고 이에 ⅡⅢ 어촌계가 ⅡⅢ 어촌계만을 위한 선착장을 지속적으로 요구하여 위 사업을 추진하게 됨

2) ■■■ 선착장 최초 설치공사 사업량은 선착장 L=50m, 진입도로 L=90m이며 선착장 보강공사는 L=50m 연장

확보하고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위 관서는 2018년 9월까지 보강공사 등 2차례의 공사를 통해 ■■■ 선착장을 설치하였으나 [사진]과 같이 해당 선착장의 길이(100m)가 짧아 만조기를 제외하면 선착장에 선박을 접안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계류장치(선박을 묶어두는 고리 등), 전선, 가로등과 같이 어업 활동 및 안전 확보에 필요한 기본적인 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어민들이 선착장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사진] ■■■ 선착장 썰물 시 사진



자료: 언론보도자료(▶▶, ◐◑) 활용

이에 감사기간 중 위 선착장의 활용방안을 검토하였는데, 선착장이 제대로 활용되려면 만조기 외에도 선착장에 선박이 접안할 수 있도록 선착장의 길이를 현재보다 최소 50m를 연장하여 총길이가 150m 이상 되어야 하고 피항 여건을 개선하여 어선을 보호하기 위해 방파제도 50m를 추가로 설치하여야 하는 등 보완 공사가 필요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런데도 위 관서는 위 선착장이 설치 후 활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파악하고도 보완 공사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거나 예산 확보 방안을 마련하지 않은 채 3억 8,375만여 원의 예산이 투입된 선착장을 그대로 두고 있었다.

또한 위 관서는 위 선착장 진입로가 사유지로서 토지 소유자들이 권리를 주장할 경우 선착장을 사용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데도 감사원 감사 종료일(2019. 7. 26.) 까지 해당 진입로에 대한 토지사용승낙 등 권리 확보나 새로운 진입로 설치 계획 없이 그대로 두고 있었다.

**관계기관 의견**      해남군은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 선착장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예산을 즉시 투입할 예정이고 사유지로 되어 있는 진입도로는 소유자에게 토지사용승낙서를 받거나 한국농어촌공사와 협의하여 새로운 진입로를 확보할 계획이며, 앞으로 관계법령과 업무지침을 명확히 파악하여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해남군수는

- ① ■■■ 선착장이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설의 보완 등 적절한 방안을 마련하고(통보)
- ② 앞으로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상태로 사업을 완료하여 사업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채 기존에 투입된 예산만 사장되게 하거나 공익사업을 수행하면서 사용권원 확보 없이 사유지를 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주의)